

지역 소식통

김제시, 귀농창업·주택 구입 예산 115억 확보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상반기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창업자금과 주택 신축 및 구입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김제시는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을 위해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으로 정책자금 115억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43세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연리2%로 장기융자(5년거치 10년상환)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에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김제시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민원실 투명 보호막 설치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청 민원창구에 투명 안전 보호막을 설치했다.

지난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민원창구는 하루 500여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로 민원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대면 업무를 봐야한다.

군은 민원인과 창구 담당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했다.

보호막 사이즈는 가로 140cm, 세로 80cm이며 보호막 하단부는 민원서류 접수가 용이하도록 접수구를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민원실은 1일 3회 실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청 사 전체는 1주 2회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전 직원 마스크, 민방위복 착용과 군청출입 시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에도 가립막을 설치해 비대면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활동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현장기술지원단' 15명 구성·운영

영농철 현장 활동... 작물 저온피해 예방·농가 개선책 제시

완주군이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저온피해를 예방하고, 본격적인 영농철 준비를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장기술지원단은 기술보급과장을 단장으로 식량자원, 원예, 과수특

작, 작목개발, 분석지원 등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저온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현장을 분야별 담당직원과 읍·면 상담소장과 동행해 농가의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에 필요한 토양분석과 생육조사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진단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물별 파종·정식시기를 준수하고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온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노지작물의 경우 비닐·부직포 등을 통해 가온을 하고, 과수는 꽃피는 시기를 유예해 살수, 송풍, 연소법을 실시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기술도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해 저온피해 예방과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공감하며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삼례읍 도시계획도로(중로2-17호선)가 오는 30일 개통할 예정으로 삼례중학교 학생들의 보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례중학교 보행여건 개선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신금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통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금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2-27호선)가 개통된다.

지난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가 오는 30일 개통할 예정으로 삼례중학교 학생들의 보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도로는 새로 이전·개교하는 삼례중학교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했다.

삼례중학교 진입도로는 길이 365m,

너비 18.5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2018년 8월 착공됐다.

도로 개통으로 삼례읍 주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삼례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통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연평 완주군 도시개발과장은 "도로개통으로 삼례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됐다"며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Happy life in GIMJE : 인구정책 공모전' 개최

김제시, 함께 꿈꾸는 미래

인구친화 인식 공유의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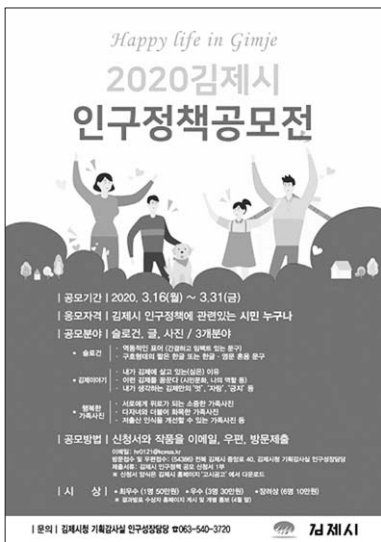
김제시는 인구감소위기 공동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Happy life in GIMJE:인구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뀌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오는 31일까지 김제시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설문조사, 김제 사는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가족사진 등 3개 분야로 선정하여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 응모작품은 충실성, 독창성,



대중성, 노력도 4개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편, 우수 3편, 장려 6편 총 10점을 선정하여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향후 홈페이지, SNS, 책자 등에 게재하여 "살고싶은 김제, 살기좋은 김제"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빠른 고령화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 되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금번 공모전을 계기로 김제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면마스크 전달

김제시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최병철)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제작한 면마스크를 환경미화원, 검침원, 수로원 전달하여 위기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쓰는 환경미화원, 검침원, 수로원 현장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면마스크 220매를 전달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한 현업근무자 대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재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 기부가 큰 도움이 된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면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도 감사하며, 김제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마스크 재능나눔 봉사는 지난 9일부터 재봉을 재능기부자 15명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매일 참여하여 20일까지 총3천 여장을 제작하여 관내 운전기사, 외국인근로자, 전통신장상인 및 취약계층 등에 전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황산면,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완료

김제시 황산면은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신청을 상북마을을 끝으로 25개 마을 모두 신청접수 완료하였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황산면 주민등록 거주 424농가에 대해 이장님을 통한 마을별 접수를 끝냈다.

이번 신청자에 대해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여부와,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중 김제 사람 상품권 60만원을 농민공익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을 대표 또는 개별농가와 환경실천

협약을 맺음으로서 농촌 깨끗한 환경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빗집 환원 사업 참여, 농업 부산물 소각금지, 제조제 사용을 줄이기,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수거하는 등의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항목들을 유념하고 환경실천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와 지역 화폐를 유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등의 긍정적 기대를 주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